



뉴욕빌립보교회는 12월 1일 오르간 헌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연주자들, 목회자들, 뉴욕빌립보교회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빌립보교회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 기념음악회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는 12월 1일 오후 5시 오르간 헌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예배의 설교를 맡은 이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는 “필라영생장로교회의 김용찬 시무장로의 자택이 집 안에서 오르간이 있고 이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 아주 크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출가했다. 장로님이 ‘이제 집을 정리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 집에 있는 오르간을 기증할 교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뉴욕빌립보교회에 그 오르간을 기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김용찬 장로, 류영진 권사 부부가 사는 집에 있던 오르간이 뉴욕빌립보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르간 헌정 기념 음악회는 Jane Ahn의 오르간 연주, Dr. Dale Stuckenbruck의 바이올린 연주, 김하나의 클라리넷 연주, 소



왼쪽부터 박희열 목사, 김용찬 장로, 류영진 권사, 이용걸 목사, 신성능 목사

프라노 조애실의 독창, 비블리컬 신학대학원 뉴욕동문목사중창단의 중창, 빌립보 찬양대의 연주 등으로 꾸며졌다. 피아노는 양혜원과 흥설희가 맡았다.

기념 음악회 앞서 드린 감사 예배는 박희열 목사가 인도했다.

빌립보 찬양팀이 인도한 경배와 친양, 예배에의 부름, 기원,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경수 장로의 기도, 성경 봉독, 이용걸 목사의 말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과 함께

드린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를 위한 현금,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 원로목사)의 현금 기도, 김용찬 장로와 류영진 권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신성능 목사(뉴욕빌립보교회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빌립보서 3장 12-16절을 본문으로 “마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 사진 제공=복음뉴스〉